

배포 일시	2022. 6. 14.(화)		
담당 부서	물류정책관실 물류산업과	책임자	과 장 박진홍 (044-201-4016)
		담당자	사무관 정일웅 (044-201-4018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화물연대본부 집단운송거부 철회 - 원희룡 장관, “물류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주길” -

- 6월 14일 22시 40분 경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.
-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점에 대하여 다행스럽고,
 - 그간 물류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
- 그간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향후 운영방향,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해 화물연대본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
 -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“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 확대”, “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” 등을 명분으로 집단운송거부를 시작하였습니다.
 - 이에 더하여 화물연대본부는 일부 주요 물류 및 산업 시설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운송 방해를 해왔습니다.

- 그 결과 일부 주요 항만의 장치율이 평시보다 증가하고, 자동차, 철강, 시멘트 등 주요 산업에서 출하량 감소 등 국내 주요 산업의 피해가 가시화 되었습니다.
-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경찰·해수부·산업부·국방부·고용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앙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.
- 또한,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,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 봉쇄를 사전에 차단하고, 다른 화물차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.
- 그 결과 차량·시설물에 대한 손괴, 방화 등 물리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
- 이번에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함에 따라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이며, 현재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(컨테이너, 시멘트)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하고, 안전운임제의 품목확대 등과 관련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.
- 아울러,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화물차주의 합리적인 운송수입 보장을 위해 지원·협력할 계획입니다.
-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여 일터를 지켰던 화물차주 여러분을 포함하여 운송회사, 기업 관계자 및 중소 상공인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.

- 그간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 여러분도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시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.
- 정부도 물류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